

용인시의회 별관 신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2024. 2. 26(월) 14:00
- 장 소: 용인시청 브리핑룸(본관 3층)
- 참가단체: 용인 맨발의 청춘 미래걷기모임, 용인특례시 미래포럼,
구성물푸레마을 발전협의회, 13개 이상 APT연합회등,
용인 동트맘 등 맘 모임, 동백현안추진회.
- 회 견: 김기택 대표

존경하는 용인특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의회 윤원균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용인특례시 미래포럼, 용인 맨발의청춘 미래걷기모임 대표 김기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서게 된 것은 시의회 별관 증축예산 108억 문제로 그동안 몇 차례 행정적 절차 및 미팅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평행이론으로 전개되어, 이제라도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자랑스럽고 살맛나는 용인특례시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인 시민들은 108억 용인시의회 증축건은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오니, 108억 증축건의 노선을 즉각 수정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시의회 별관 증축 예산 108억에 대해 시의회, 관계 공무원 등과 진행해 왔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요 진행사항

- o 2023. 12.19 : ‘용인시의회에 바란다’에 민원 접수
 - o 2024. 1. 17 : 용인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음.
 - o 2024, 1. 19 : 용인시의회 윤원균의장과 통화 2회
 - o 2024. 1. 30 : 윤원균의장 시청직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미팅
 - o 2024. 2. 21 : 시의회 별관 건립반대 1인시위
 - o 2024. 2. 19 : 용인시의회로부터 민원회신 접수
 - o 2024. 2. 21 : 용인시청으로부터 민원회신 접수
-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요청하시면 전달 드리겠습니다...

□ 미팅요지

o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시의회에 바란다" 질의 응답과 관련하여, 용인시의회 윤원균의장과 본인 김기택대표는 추가로 통화하였으며, 그 내용은 용인시에서 시의회에 전문인력이 사용할 일부 부족한 공간을, 기존의 건물들에서 대체건을 통

화하며, “(시청 신청사 별관에서) 그 자리를 준다면 가겠다.-윤의장”, 즉, 별관 증축을 보류 할 수 있다 란 요지였으며, 그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1월 30일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시 재산관리과, 동백현안추진회 용인맨발의청춘모임 외 대표진이 다음처럼 만남을 가졌습니다.

※ 용인시의회 윤원균의장 : 증축 보류 등 변경을 의장 단독으로 결정 할 사안이 아닌 바, 시의회 의원들과 협의 및 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알려 주겠다.

※ 2.용인시 재산관리과장 : 전문인력이 사용 할 일부 부족한 공간 등에 대하여,(증축 원안을 벗어난) 기존의 건물에서 대체 안에 대하여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겠다.

※ 3.김기택 대표, 김종철 고문 :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은, 용인시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용할 곳은 넘쳐나는 열악한 용인시 재정을 감안하여, 별관 신축을 반대하는 민의를 즉각 반영 바라며, 증축을 중단하고, 섬김의 자세로 기존의 건물에서 일부 늘어난 전문인력들이 사용할 공간을 찾아 대체하라.

○ 2024년 2월 16일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으로부터 부정적 회신 접수:
시의회의회장 시민대표와의 협의 내용을 번복하며, 별관 증축을 지속하겠다 함.
참조로,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에게 상기 협의처럼 기존청사 활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보다는, “회의 언급, (상기 기존 건물에서 유용 등 협의 내용을 벗어난 듯?), 심도 깊은 논의가 아닌, 오래 전 7~8대부터 숙원사업이라 (시의회 별관신축은) 다음(미래)을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 의견이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이면, 대체 용인시의회 의장이 어떻게 시민대표와의 협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중적인 잣대로 공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의혹은 이해가 불가합니다!!!

○ 2024년 2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회신접수 :
요지 ~“ 시는 시의회가 (회신에 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시의회 증축을 재고하고 신청사 일부 공간을 시의회 사무공간으로 제공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 하겠다”.

□ 문제점

○ 현재 시의회는 의원별로 사무실도 다 있고, 전문 위원들 역시 근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미래의 정족수 증가 및 공무원 수 증가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혈세로 의회 신축예산 108억을 집행하려는 것은 용인 시민보다는 시의원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처사라도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시의회 의원 모두는 코타키나바루 소주 60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해 공분이 되었다는 사실과 시 재정상태와 집행해야 할 사업 등을 다시 한번 더 반추해 보고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겸허한 모습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08억 용인시의회 증축을 즉각 멈추고, 대신 IC 지하철 등 시급한 용인 현안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용인특례시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윤원균 시의회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모두 함께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다 함께 반듯하고 살맛 나는 용인특례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단체 : 용인 맨발의 청춘 미래견기모임, 용인특례시 미래포럼,
구성물푸레마을 발전협의회, 13개 이상 APT회등,
용인 동트맘 등 맘 모임, 동백현안추진회.

